

인터넷 · TV용 셋탑박스 특허출원 급증

셋탑박스가 인터넷 TV(IPTV) 시청과 및 인터넷 뱅킹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능 도우미로 진화하고 있다.

셋탑박스는 TV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인터넷 방송채널과 프로그램을 내려 받거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로 2008-12년에는 인터넷 TV 장비시장의 71%인 14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.

특허청에 따르면, 셋탑박스 특허출원은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활성화와 신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TV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다.

국내 셋탑박스 특허 출원동향

(단위: 건)

출원연도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총계
출원건수	13	25	55	41	54	58	74	51	72	96	539

1999-2008년 동안 총 539건이 출원됐으며 기업출원이 464건(86.1%)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출원은 41건(7.6%)이었다.

관련 특허출원의 기술동향을 보면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.

셋탑박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신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방송통신 융합산업 핵심기술로 특허청도 인터넷 TV 셋탑박스 분야를 R&D 연구개발 특허 품목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9/04/03>